文 "유감" 安 "절차 문제" 洪·劉 "환영"…안보대결 점화

사드 기습 배치, 대선판 흔드나

환경평가·설명회도 없이 강행
심상정 "차기 정부서 재검토"
보수·진보 진영 입장차 뚜렷

대선정국에서 전격적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장비 배치가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북핵 위기 등 안보 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26일 사드 배치가 현실화하자 대선 후보들은 각각 다른 견해를 드러내며 충돌했다. 보수·진보 진영에 따른 후보들의 입장차가 뚜렷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국민의 의사와 국내법 절차를 무시한 기습 배치'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은 '원천 무효'를 주장했지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등 범보수 후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문 후보는 이날 경기 포천의 육군 승진 과학화훈련장에서 통합화력격멸 훈련 참관 후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무리하게 강행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이 시기에 들어서니 마지막 결정은 다음 정부로 넘겨서 다음 정부로 하여금 사드 배치 문제를 다양한 외교적 카드로, 특히 북핵 폐기를 위한 여러 가지 외교적 카드로 활용할 수 있게 넘겨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강원도 춘천 유세 후 기자들에게 "사드 배치는 한미 합의에 의해 이행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정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같은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환경영향평가 실시도 하기 전에 한밤중 기습배치라니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군의 존재목적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사드 배치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인 만큼 더더욱이나 절차에 따라 의견조율 등을 거쳐 주민과 충돌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드 배치가 얼마나 진적되든지 간에 차기 정부에서 사드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면서 "일방적 사드 기습배치는 인정할 수 없다. 원천 무효"라고 비판했다. 가장 분명히 반대 입장을 표시한 것이다.

반면 홍 후보는 이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초청 특별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잘 됐다"면서 "이제 전술핵도 들어오면 우리 안보는 튼튼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홍 후보의 중앙선대위 김명연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북핵과 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하고 있다. 사드는 현 상황에서 최선의 전력 방어무기"라면서 "더 이상 반대하거나 다음 정부로 넘기라는 식의 소모적인 논쟁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는 이날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선거운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오래전부터 '대통령 선거 전에 배치되는 것이 국론분열을 막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참 잘된 결정"이라면서 "이제는 정치권에서 더 이상 딴소리가 안 나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6일 오전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에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가 전격 배치돼 있다. /대구일보 제공

정권교체 등 변수 고려 대선 전 '알박기'

주한미군 '속도조절' 예상 깨고 사드 기습배치 왜?

주한미군은 26일 새벽 기습작전을 하듯 경북 성주골프장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핵심 장비를 전격 반입했다.

이날로 대선을 13일 남긴 시점에서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시도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한국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생략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의 전격적인 사드 장비 반입은 대다수 국민의 예상을 깨뜨렸다. 한미 양국이 사드 부지 공여 절차를 끝낸 지난 20일만 해도 성주골프장의 환경영향평가, 기지 설계, 공사 등 모든 준비를 마친 다음 장비와 병력을 배치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이달 16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한국 방문에 동행한 백악관 외교정책 고문은 사드 배치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며 "(한국의) 차기 대통령의 결정으로 이뤄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혀 사드 배치를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을 시사했다.

다음날에는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배치가) 단기간에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사드 배치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실었다.

이 때문에 미국이 한국의 차기 정부와 긴밀한 교감 아래 사드 배치를 진행하고자 대선 이후로 늦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중국의 대북 압박을 끌어내는 대가로 사드 배치를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빅 딜'을 할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사드 부지 공여 절차를 마친지 겨우 6일 만에 사드 장비를 전격적으로 반입함에 따라 미국이 사드 배치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관측은 순식간에 깨졌다.

오히려 정권교체 가능성이 큰 이번 대선을 앞두고 사드 '굳히기'를 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주한미군은 대선 이후 한국의 여론 지형이 바뀌어 사드 배치가 어려워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배치를 서두르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미동맹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드 배치 찬성여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굳이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공고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려면 사드 배치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과 공감대를 만들며 차근차근 진행하는 게 정도(正道)라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지난달 초 사드 발사대 2기 반입 사실을 공개한 이후 모든 장비의 반입과 이동을 철저히 비밀에 부친 것도 한국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을 살 만하다. /연합뉴스

예나 지금이나…헛된 욕망이 부른 파멸

김은영의 '그림 생각'

(183) 맥베스

'뱅코의 망령을 보는 맥베스'

얼마 전 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공연된 '맥베스 411'의 작품명은 1606년 영국에서 초연 이후 411년 만에 재탄생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한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기도 했겠지만, 새삼 인간의 이중적이고 다면적인 내면 심리를 일찍이 꿰뚫어본 셰익스피어에 감탄해본다. 양심의 반란에 번민하고 공포와 절망 속에서 죄를 더해가는 맥베스의 갈등, 아니 헛된 욕망에 현혹되고 세속적 유혹에 허물어지는 인간의 나약한 모습은 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인 것 같다.

흔히 '양심의 비극'으로 알려진 '맥베스'는 맥베스가 개선장군으로 귀향하던 길에 우연히 자신이 영주를 넘어서 왕이 될 것이라는 마녀들의 예언을 듣고 그 순간부터 야망을 품고 결국 왕을 살해한다는 줄거리다. 예언대로 왕관을 쓰지만 신하들의 반란으로 무참히 죽음을 맞이하는 맥베스. 셰익스피어는 마녀들이 '원래 있지 않은 악의'를 심어주기 위해 나타난 존재가 아니라 맥베스의 기고만장한 마음속에 싹트고 있던 '악의'를 충동시키는 존재로 여겼던 것 같다.

서양미술에서 셰익스피어의 비극작품은 극적인 장면이 많아 작품으로 형상화한 화가들이 많다. 셰익스피어 작품을 통해 인간의 내적 갈등과 고독을 표현해냈던 테오도르 샤세리오(1819~1856)의 '뱅코의 망령을 보는 맥베스'는 맥베스가 권력욕에 사로잡혀 살인을 저지르고 죽음으로 끝을 보고야 마는 인과응보를 표현한 작품이다.

자신이 권좌에 오른다는 예언과 함께 뱅코의 자손이 왕위에 오를 것이라는 마녀들의 예언을 믿고 전쟁동지였던 뱅코를 죽인 후 연회석상에 나타난 망령을 보고 겁에 질린 순간이다. 자신의 눈에만 망령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맥베스가 나락에 떨어지는 시점이기도 하다. 셰익스피어의 명언 "눈앞의 공포보다 끔찍한 상상이 더 두렵다"는 의미를 실감하게 하는 화폭이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박사〉

'비문 단일화' 후보들 외면

대선 막판 변수로 꼽혀온 비문(비문재인) 후보 단일화론이 동력을 잃고 소멸되는 분위기다.

바른정당이 비문 후보 단일화론을 꺼냈지만 유승민 후보가 완주 의사를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는데다 파트너인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이 이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5일 개최된 4차 대선후보 TV토론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선거전 연대는 (없다고) 거짓말하지 않고 백번도 넘게 말했다"고 말했고, 바른정당과의 양자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니다"라고 독자 노선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3자 단일화에 대해 "나는 생각도 없는데"라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고, 바른정당과의 양자 단일화에 대해서는 "(유 후보가) 안 하려고 하잖아요"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소속인 유 후보조차 "저는 단일화하지 않는다"며 후보 동의 없는 단일화가 있을 수 없다고 완주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문 후보와 함께 양강구도를 형성해온 안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면서 판세에 변화가 생긴 만큼 선거 막바지에 단일화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상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단일화를 통해 문 후보와 양자 대결 구도를 형성할 경우 승부를 예측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혼전 양상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임동욱기자 tuim@